



문화로 승화시킨 안전속에서 무재해 일터 거듭나

-동양제철화학(주)군산공장-



▲ 박준영 공장장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국화향기는 가을의 무르익음을 알리고 나무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단감은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상징한다. 풍요로움 뒤에 감춰진 농부의 땀과 노력처럼 이만큼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 뒤에서 한발짝 물러나 미소짓는 이들이 있다.

1959년에 태어나 45년간 오로지 화학공업의 외길을 걸으며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을 닦은 동양제철화학(주)는 국가경제성장에 발맞추어 기초 화학, 농축산화학,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군산공장은 1989년에 준공하여 우레탄의 원료인 TDI를 비롯하여 섬유, 제지, 접착제 등의 원료인 PVA 제조체의 원재인 BAS 무광택 페인트 원료인 Micloid, LCD기판 Cleaning 약품인 인산 등을 주생산하고 '96년도부터 시행해온 FSM 제도를 통해 올해 최고등급인 P등급을 받았으며 OHSAS 18001, KOSHA 18001을 인증 받은 안전보건



경영의 선두주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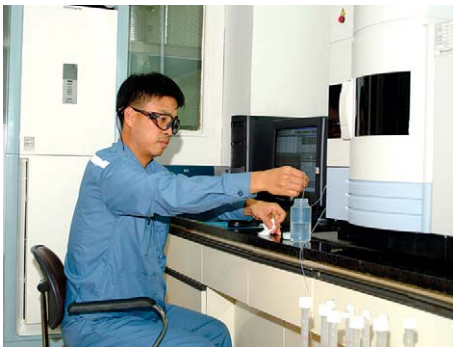
한국의 마지막 송도상인인 창업자 송암 이회림 선생의 철저하고 완벽한 회사철학을 바탕으로 안전경영을 일궈나가는 이곳의 안전 이야기를 살짝 엿들어 보았다.

안전! 문화로 승화시키다

동양제철화학(주)군산공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있다. 물론 사무실 안에서는 착용하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는 이들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부터 챙긴다. 외부에서 보면 의아해 할지 모르나 이곳에서는 하나의 문화이며, 생활방식이다.

사내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며, 그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박준영 공장장은 기본 준수 체질화에 따른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한다. 자동차에 오르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습관화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사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2003년은 ‘안전문화 향상’의 해로, 금년은 ‘안전문화 정착’의 해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발한 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고가능성 0%에 도전한다

동양제철화학(주)군산공장은 바이오리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신체, 감정, 지성 리듬 곡선을 토대로 근로자들을 관리한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출근시간인 아침 7시 30분에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근 후에는 바이오 표찰을 착용하여 주의토록 한다. Quick Coupling 사용 등 화재의 초기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사시 대비를 위해 훈련 대상만을 지정, 불시 메시지 전달로 실시하는 방재훈련도 주목할 만하다. 불시 훈련으로 초기혼잡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향상된 실천대처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그들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류인배 환경안전팀장은 차츰 훈련 대상 통보도 없는 100% 유사시 훈련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얘기한다.



이곳에서는 협력업체 포함 약 4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내부 근로자들뿐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





리에도 철저한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당사 실정에 맞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안전 교육 이수 후 출입증과 안전모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유해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여 유사시 즉시 조치토록 하고, 각종 안전규정 위반시 패널티 적용으로 차후 있을 작업에도 영향을 준다.

이외에도 안전표어, 포스터, 아차사고사례를 수시로 공모하여 우수사례 선정시 인사고과 1단계 상향 조정, 포상금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매월 2회 이상 안전문화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안전활동을 부서별로 추진하여 성과나 실적 등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무재해운동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같은 회사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이면 군산공장내 잔디구장에서 사원가족 체육대회가 열린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어울림은 물론,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며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특히, 가정의 행복이 회사로, 사회로, 더 나아가 국가로 이어진다는 박준영 공장장은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 강좌나 체험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

헌혈 행사를 매년 2회 이상 일반인들의 헌혈량이 적은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헌혈증은 사내 건강지원실에 기부하여 관리하고 직원이나 가족 수혈 필요시 지급하고 있어 매년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정장착용의 날, 사내 축구대회 등 일할 맛 나는 일터,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동양제철화학(주) 군산공장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근로자를 최고의 보물로 여겨 안전을 필수로 신뢰라는 바탕에서 쌓아올린 동양제철화학(주) 군산공장의 탑은 이미 하늘높이 솟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탑이 보다 견고하고 높이 솟아오를 것을 감히 예견하며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성호연기자〉

